

序 文

뿌리를 찾음은東西古今 어디든지 있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族譜를 만들어 先祖의 陰德과 業績을 남겨왔다。不幸하게도 一九五〇年 韓國動亂으로 말미암아 所藏된 家譜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것들이 紛失 또는 燒却되어 그 出處를 알수 없으며 特히 解放以後 三八線以北에 居하시다가 그後 越南한 사람들은 大部分 所藏하고 있든 族譜를 그대로 두고온 狀態에서 四〇年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며 이들은 하루속히 南北統一이 이루어져 北에 家譜를 再整理할 기쁨을 鶴首苦待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機微가 없어 痛歎할 따름이다。

一九七七年一〇月三日에 晉州金氏同宗人들이 모여 宗親會

創立總會를 하여 會則을 만들고 그후 晉州金氏 任員會를
 組織 하였으며 各地域別 代表들이 連續會議를 通하여 晉州
 金氏 大宗系譜를 만들어 族譜를 펴볼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系譜의 一致를 보지 못해 大譜가 늦어짐에 몹시
 도 悚懼스럽고 遺憾되는 일이오나 언젠가는 必히 大宗譜가
 出版되리라는 것을 確信하며 繼續追論하고 있는 바다. 大宗
 譜가 늦어짐에 따라 各宗派別로 小規模나마 世譜를 만들어
 大宗譜를 만들기 위한 밑돌의 分을 하고져 晉興君派世譜를
 펴내고져 하며 其間 越南한 以後 모은 資料를 整理하여 이
 世譜를 꾸며볼려고 한다.

敬順王의 第八子 이신 鍾公을 始祖로 始作하여 第二七世
 孫 晉興君까지는 國立中央圖書館을 爲始하여 南韓에 居하신

7
분들의 族譜와 一部宗派에서 越南時 갖고온 것들을 參考하였으며 그후 現今까지는 晉興君系列의 各宗派의 譜와 本人이 越南以前 보고 들었던 말들을 基礎로 하였으며 當時어른들과 省墓에 參席한것을 再想起시켜 말로써 傳함이 限界에 到達하였음을 認識하여 글로서 남길려고 한다.

한가지 유감된 일은 第二七世이신 晉興君 良彥公에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第二八世 志澤公과 다른 子와의 順이 明確하지 못함이요, 훗날 高 향에 있는 世譜와 대조할때 그 順이 明白할것으로 안다.

이 世譜를 再整立함에 있어 文獻未備와 記憶不足으로 完全한것이 못되며 未熟한點은 後孫들의 補完을 期待하는 바이다

晉州金氏（晉興君派）廿三話

一九八五年一〇月

日

晉州金氏大宗會

會長

金昌俊

晉州金氏世譜

先系 瞻源錄

始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關智子勢漢子阿道子首留子郁甫子仇道

檀紀二二九八

年西紀六五年

新羅昔脫解王

九年乙丑三月

四日降臨於金

城西始林

官職大輔公

配金氏初封太子

進太輔授國政

後讓位婆娑不

即王位追封世

祖大王

摩貞夫人昔氏

父太子追封葛

文王康造祖脫

解大王會祖龍

城國王含達娑

一云熱漢

居西干○接尼

師今居西干次

次雄麻立干皆

羅時王者之號

又方系言尊長

之稱又呼貴人

之稱

官職波干

一云阿都

官職再干

一云壽留

官職再干

一云郁部

西紀一七二年

阿達王十九年

漢靈帝熹平元

年壬子

官職一吉渰追

封葛文王

配述禮夫人朴氏

父後封葛文王